

교환학생 수학보고서

1. 기본정보

학과		이름	신*희
파견국가	미국	파견도시	펜실베이니아
파견대학	Shippensburg university	파견기간	2014.08.18~2015.05.08

2. 파견대학 및 수업 전반 사항

구분	결과보고(서술형)
파견대학	<p>펜실베이니아 중남부의 해리스버그에서 40마일 거리의 쉬펜스버그 지역에 위치한 쉬펜스버그 대학교는 1871년에 설립된 고등교육 목적의 주립 대학교이다. 미국의 수도 워싱턴 D.C.와 관광지로 유명한 뉴욕, 필라델피아, 피츠버그와 가까운 거리에 위치해 있어 다른 곳보다 비교적 교통이 편리한 편이다.</p> <p>그리고 캠퍼스 내 약 8,000명의 대학생과 약 1,100명의 대학원생이 재학 중이고 교내에 9개의 학생 기숙사가 있다. 학교 과정은 크게는 미술과 과학, 비즈니스, 교육과 인적 서비스의 3개의 단과로 나누어져 있으며, 그 안에 약 40여 개의 대학 과정과 18개의 대학원 과정으로 이루어져 있다.</p>
2014-2학기 수업	<p>✧ 전반적인 수업 분위기</p> <p>이 곳의 수업 분위기는 한국과 사뭇 다르다. 한국의 수업 방식은 보통 교수님이 학생들에게 지식 전달하는 것을 주 목적으로 한다면 이 곳을 포함한 미국의 전반적인 수업 분위기는 학생들이 이끌어 간다. 학생들 대부분은 수업의 주제와 상관없이 궁금한 것이 있으면 바로 이야기 하고 전체적으로 학우들 간 토론 분위기가 형성되어 있다.</p> <p>✧ 수업 – Basic Writing</p> <p>교내 재학생 중 1학년 학생들과 국제 학생들을 위해 개설된 글쓰기 수업. 수업은 미국의 역사, 정치, 경제, 문화 등 광범위한 주제를 다루었고, 학생들은 매 주마다 한 주제로 글을 쓰고 토론하는 형식으로 진행되었다. 이 외에도 한 학기에 2번 복지센터와 요양원에 방문하여 자원봉사 활동을 하기도 했다. 처음에 글쓰기를 수강한 목적은 글쓰기 실력 향상이었는데, 이 수업을 통해 글을 쓰는 요령이 생겼을 뿐만 아니라 매 주에 한 번씩 제출할 에세이의 문법이나 어색한 문장 교정 등 튜터의 도움을</p>

	<p>받음으로써 다른 수업 과제의 논점도 잘 파악할 수 있게 되었다.</p> <p>✧ 수업 – Organization behavior</p> <p>조직 행동론 수업으로 비즈니스 행동에 관해서 태어나서 가장 많은 논문을 읽었던 수업이다. Dr. Hargrove 교수님이셨는데 가르침에 대한 열의가 대단하셔서 학생들 또한 열심히 수업에 임했다. 여러가지 조직 행동 모형과 그래프 이해, spss 시스템을 활용한 결과 분석까지 정말 많은 것을 배운 수업이었다.</p>
2015-1학기 수업	<p>✧ 수업 – Concert Chior</p> <p>합창단이 생긴 이래로 국제 교환학생 합창단원은 내가 처음이라 지휘자 선생님, 피아노 선생님과 나머지 합창단원들이 신기해 했다. 합창단은 Concert choir라는 이름으로 교내 30~40명의 학생들로 구성되어 있고 매주 월, 목요일 마다 2시간씩 수업 형식으로 연습을 한다. 그리고 학기가 끝나기 전 2주 전에 학교 주변 교회에서 합창 공연을 한다. 힘들었던 점은 영어로 된 가사를 이해하고 부르는 일이었는데 수업 친구들이 발음과 뜻을 알려줘서 많은 도움을 받았다. 또한 영어 노래 이외에도 독일어, 프랑스어, 라틴어로 된 노래도 불러서 다양한 언어를 접할 수 있어서 좋았다.</p> <p>✧ 수업 – Supply chain and operation management</p> <p>물류 관리에 관한 수업을 한 번도 들어보지 않아서 과제와 시험을 수행하는 것에 걱정을 많이 했었는데 다행히 그림과 그래프, 수식을 통해 교수님께서 자세히 설명을 해 주셔서 기대보다 높은 성적을 받았던 수업이었다. 경영학과 학생이라면 들어볼 만한 수업으로 추천한다.</p>
프로그램 운영	<p>재학생들의 편의를 돕기 위해 학교 내 학생회관, 학생 식당, 학생 서비스 센터, 체육관, 도서관, 상담 센터, 컴퓨터 기술 센터, 은행, 진료소 등을 운영하고 있다. 쉬펜스버그 대학교는 학생들로 하여금 교육적, 사회적, 문화적 능력을 발달시키고, 전공 교육뿐만 아니라 학생회 운영 프로그램을 통한 레크리에이션 활동 지원, 부/복수 전공 과정, 교내 직업지도 센터, 라이팅 센터, 학생 동아리, 인턴십, 교환학생 프로그램 등 다양한 분야에서 학생들의 직업 훈련을 돕고 있다.</p> <p>또한 국제 학생들을 위한 프로그램은 입/출국 시 공항까지 셔틀버스 지원, 학기마다 오리엔테이션, 소풍, 현장학습, 3번의 커피아워(티타임), 라이팅 센터, 멘토-멘티 프로그램 등이 있다. International office의 Mary 선생님이 담당하고 있고, 프로그램들은 교환학생, 방문학생들이 학교생활에 잘 적응할 수 있도록 도와준다.</p>

3. 생활전반

구분	결과보고(서술형)
날씨	대체적으로 한국 날씨와 비슷하지만 공기가 건조하다. 그리고 비는 자주 오는 편은 아니었지만 날씨가 맑았다가 갑자기 비가 오는 경우가 많았다. 이 지역의 날씨를 체감하기엔 11월부터 3월까지 겨울 날씨로 굉장히 추웠다. 두터운 옷을 많이 준비해가는 것이 좋다.
안전	<p>차로 5분 거리에 대형마트(Walmart, Giant, Peebles, Dollars tree)가 위치해 있어 생필품이나 식자재를 필요한 그때그때 구입할 수 있어 매우 편리하다. 그리고 학교 측에서 학생증을 제시하는 학생들에게 무료로 마트와 주변 지역(해리스버그, 챔버스버그)에 방문할 수 있도록 날마다 셔틀버스를 제공하고 있다.</p> <p>가까운 거리에 소방서가 있고 학교 내에 경찰서가 있어 밤늦게 혼자 다니지만 앓는다면 이 지역의 치안은 매우 훌륭하다. 또한 동네 곳곳에 식당, 은행, 서비스 센터 등이 있어 언제든지 편리하게 이용 가능하다.</p>
숙소	<p>학교기숙사(V) 홈스테이 () 외부 숙소() 기타()</p> <p>교내 아파트형 기숙사인 Stone Ridge Commons에서 10개월 간 거주했다. 다른 기숙사와는 달리 방 안에서 직접 요리해 먹을 수 있었던 것이 가장 큰 장점이었다. 한 방에 2명이나 4명이 살게 되는데 룸메이트들과 방을 함께 이용하는 만큼 전체 기숙사 규칙을 제외하고도 룸메이트 간 규칙을 따로 만들어 서로 주의를 했다. 기숙사 내 가구, 화장실, 주방, 거실이 방마다 하나씩 있고, 층마다 스터디룸, 세탁실, 1층에 TV라운지와 피트니스실이 위치해 있다.</p>
식사	<p>학교 Meal Plan () 학교식당 개별이용 (V) 홈스테이 () 외부식당 (V) 직접 요리 (V) 기타 ()</p> <p>하루에 한 번은 꼭 밥을 먹어야 하는 체질이라 1학기 때는 주로 기숙사 방 주방에서 직접 요리를 해 먹었다. 재료는 학교에서 가까운 월마트나 자이언트에서 구입하였고 기숙사 시설 내에 주방이 있어 편히 요리할 수 있었다. 2학기 때는 음식에 어느정도 적응이 되어서 학교 내 카페테리아와 학교 식당인 Reisner dining hall과 Kriner dining hall을 이용했다.</p>
교통	<p>지역 간 거리가 멀어 주변에 사는 학생들을 제외하고는 대부분의 학생들이 기숙사 내 교외 자취방을 이용하였다. 지리적 위치는 워싱턴D.C.와 뉴욕, 피츠버그와 가까운 거리에 있었지만, 차가 없었기 때문에 다른 곳을 방문하기가 어려웠다. 주요 도시에 방문하려면 학교에서 약 40분 가량 차를 타고 공항이나 기차역을 방문해서 대중교통을 이용해야 했다.</p>

4. 소요경비 (본인이 지출한 총 비용)

단위 : 달러

항목	비용	비고(간략한 비용내역 등)
항공료	\$1500	왕복
Fees	학교별 tuition 이외 University Support Fee, \$1650	
보험료	어시스트유학생보험 \$300	
숙소	\$5000	기숙사(2개 학기)
식비	\$250~300	한 달 기준(300*10)
교통비	\$200	여행, 방문 등
책값	\$800	2개 학기
기타1		
기타2		
합계	약 \$13,000	1년 기준, 여행 비용 제외

5. 출국 전 준비사항

출국 전 유학 준비 절차

1. 대학/어학기관의 자매/교환학생 결연이 맺어진 학교 찾기
2. 대학/어학기관의 기준(보통 TOEFL이나 IELTS 성적)을 충족한 뒤 서류/면접 지원 후 합격 통보 받기
3. 대학/어학기관의 입학 허가서 받기

*가장 중요한 절차 - 서류와 면접을 통해 합격 통보를 받았다 하더라도 소득, 건강상의 이유로 취소가 될 수 있다.

입학허가서(I-20) - 입학 허가를 받기 위한 서류: 입학 허가 신청서, 여권 사본, 영문 은행잔고증명서, 소득금액증명서, 재직증명서(부모), 영문최종학력증명서(재학증명서), 영문성적증명서, 비자용 사진, 영어 성적표(증명용-TOEFL이나 IELTS), 건강증명서(MMR-홍역, 볼거리, 풍진- 어렸을 때 의료기록도 인정) 등

4. 비자 발급 받기

보통 유학생들의 비자는 F1 visa(유학비자) 또는 J1 visa(관광비자)

5. 입학허가서와 비자 발급이 정상적으로 처리가 되었다면, 항공권을 발급할 것

*항공권 예매: 개인이 저렴한 항공권을 찾아 직접 예매하거나, 여행사/항공사의 도움을 받아 빠르고 쉽게 예매가 가능

*이 때 주의할 것! - 항공권을 전문 여행사/항공사의 도움을 받아 왕복으로 예매할 시, 수수료가 들 수 있다. (예: 8월에 한국 출국을 기준으로 보통 항공사의 3월 이후의 비행 일정은 나와있지 않기 때문에 변경 수수료/패널티가 3만원 정도 부과된다. 1회 변경 시 - 3만원, 2회 이상 - 12만원), 또한 유학 이후 여행을 계획한 학생이라면 편도권 예매를 추천한다. 왜냐하면 왕복권의 경우 출발지와 도착지가 정해져 있어 여행을 계획한 학생이라면 다시 돌아와야 하는 번거로움이 있을 수 있기 때문이다.

6. 짐 싸기

① 준비물을 꼼꼼히 챙기기

여권과 항공권(분실 시에 대비하여 스마트폰으로 사진을 찍어두거나 프린트할 것!), I20와 I94(입학허가서를 받은 후), 국제학생증 번호, 국제면허증(있는 경우에 한함), 여벌 옷(날씨에 맞는 옷을 챙길 것), 속옷, 신발, 컨버터(돼지코 - 보통 외국은 110V를 많이 쓴다), 멀티탭 등

② 캐리어/가방의 빈 공간을 최대한 활용할 것

캐리어에 옷을 펴서 넣거나 접어서 넣는 대신 돌돌 말아서 넣으면 많은 양을 담을 수 있다. 압축팩을 이용하여 많은 옷들을 담을 수 있다. 액체 용기는 뚜껑에 비닐이나 랩을 씌워 놓으면 흘리는 것을 방지할 수 있다.

③ 유학의 경우, 세면도구, 화장품, 수건, 여성용품 등은 현지 대형마트에서 싸게 사는 것도 방법!

짧은 기간의 해외여행과는 달리 유학의 경우, 1년치의 짐을 싸야 하기 때문에 무거운 무게의 짐들은 최소화하는 것이 좋다. 그리고 실제로 대형마트나 몰에서 구입할 시, 한국에서 산 것보다 더 저렴하고 질 좋은 것들도 많다.

④ 짐을 다 챙긴 후, 가방/캐리어의 무게 재기

항공사마다 방침이 다르지만 보통 짐칸으로 보내는 가방은 최대 2개까지, 두 무게를 합한 것이 46kg을 넘지 않아야 한다. 두 개의 이민가방 무게가 46kg을 넘으면 패널티를 내야 한다.

⑤가방에 자물쇠 채우기

도난의 경우에 대비하여 자물쇠를 달아놓는 것이 좋다.

6. 본인 소감 및 평가

어렸을 때부터 막연히 외국에서 공부해 보고 싶단 생각을 자주 했었다. 대학에 와서 국제 프로그램형 기숙사인 글로벌 빌리지에서 여러 외국인 친구들도 만나서 친해지면서 실력도 많이 향상되었고 자신감도 붙은 덕분인지 운 좋게도 교환학생으로서 미국에서 공부할 수 있는 기회도 얻게 되었다. 사실 교환학교로 선정된 여러 학교 중에서 내 토플 성적에 맞춰 쉬펜스버그 대학교를 선택했는데 학교가 시골에 위치해 있어 지리적으로는 매우 불편했지만 아시아인들이 거의 없는 지역이었던 점이 좋았다. 그 동안 교환학생을 다녀온 여러 선배들, 친구들을 보면서 1년이라는 기간이 영어 실력을 월등하게 향상시켜 줄 만큼 충분한 시간이 아니라는 걸 알았다. 더욱이 나의 경우는 10개월이었고 욕심이 많은지라 빠른 시간 내에 영어 실력도 향상하고, 되도록이면 많은 미국 현지인들 사이에서 그들의 라이프스타일을 경험해 보고 싶었다. 기숙사도 글로벌 빌리지 같은 교환학생들을 위한 기숙사가 아니라 현지 미국인 학생들과 함께 숙식생활을 함께 하는 곳이었고 수업에서도 다른 학생들처럼 거의 동등하게 대우 받았으니 어느 정도는 내 목표를 실현하고 돌아온 것 같다.

사실 입학허가서를 받고 비자 발급, 항공권 예매가 끝난 뒤에도 교환학생으로서 미국으로 간다는 실감이 나지 않았다. 그 당시에는 교환학생이 되었다는 사실에 정말 기뻐지만 유학의 목표가 뚜렷하지 않았던 것 같다. 오히려 외국에 가니까 다 잘 될 거라는 막연한 환상에 젖어 있었다. 그래서 미국에 도착한 후 한 달간은 정말 힘들었다. 딱히 하고 싶은 것 없이 수업과 과제에 시달리며 사는 게 한국에서의 생활과 별반 다르지 않았다. 그 때 즈음, 내가 정말 유학을 하면서 이루고 싶었던 것을 다시 생각해 보았고 나름의 목표 리스트를 만들었다. 리스트에는 영어실력 향상, 여행 최대한 많이 해 보기, 운동 열심히 하기 같이 일반적인 목표도 있었는데 마지막 줄에 '해 보고 싶은 거 다 해보고 후회 없이 한국 돌아가기'를 적었다. 그래서인지 봄 학기에는 지난 가을 학기와는 달리 수업 구성도 전공 과목에 휩쓸리기 보다는 내가 하고 싶었고 배우고 싶었던 것 위주로 만들었다. 22년 동안 운동 한 번 하지 않았던 내가 틈틈이 요가를 배우러 다니고, 합창단원이 되었고, 초등학생 때 이후 그만두었던 피아노도 다시 연습했다. 물론 이 곳에서 보내는 동안 우여곡절도 있었고 좋은 기억만 가득한 교환학생 생활은 아니었지만 새로운 곳에서 다양한 사람들을 만났고 여러 가지 경험을 하게 만들어 준 뜻 깊은 시간이었다.

7. 사진보고서(6장 이상)



국제학생 소풍



멘토 교수님과 함께한 식사



합창단 공연



글로벌 빌리지에서 만났던 친구 Ethan을 만나 함께 외식



여행에서 만난 가족과 함께 식사	국제 학생 모임
	
학교 정문 앞에서	